

비정규직 1만8000명 줄었지만…2명중 1명 ‘불완전 고용’

국가데이터처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남광주 정규직 증가에도 비정규직 45.6%

전국보다 7.1%p 높아…고용의질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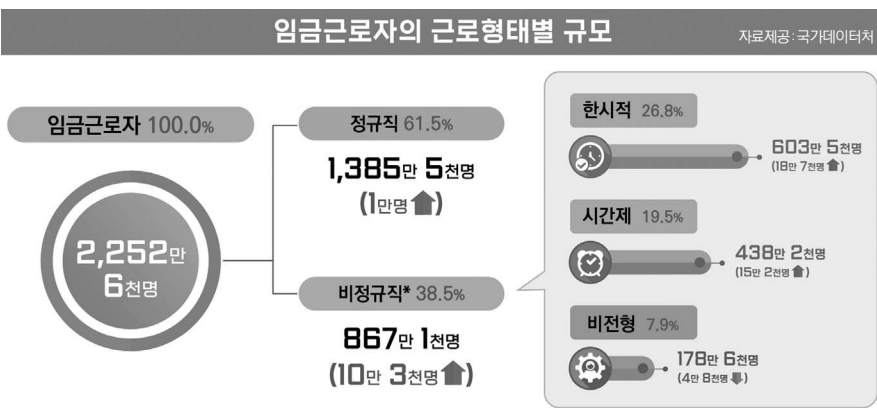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1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1만4000명 늘었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를 웃돌아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임금근로자는 126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68만5000명으로 1만4000명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7만5000명으로 1만8000명 줄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감소에도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면서 근로형태별 고용 규모가 엇갈렸다.

다만 비정규직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약 45.6%로, 전국 평균인 38.5%를 7.1%p 웃돌았다.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3000명 늘어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한시직, 시간제, 비전임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속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정발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것과 달리 전남광주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 비정규직 감소 폭이 더 컸다. 전남의 임금근로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 줄었다. 정규직은 32만5000명으로 9000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30만3000명으로 1

만2000명 감소했다.

광주는 임금근로자가 6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36만명으로 6000명 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27만2000명으로 6000명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전남이 약 48.3%. 광주가 약 43.0%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비정규직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8월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3000명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2252만6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0.3%p 상승했다. 정규직은 1385만5000명으로 1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로는 기간제 등 한시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했다. 전국 한시직 근로자는 603만5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고,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2000명으로 15만2000명 증가했다.

파견·용역과 일일근로 등을 포함한 비전임 근로자는 178만6000명으로 4만8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도 과제로

남았다. 전국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5만6000원 늘어 임금 증가 폭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5%, 건강보험 53.0%, 고용보험 54.0%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0.6%p, 0.2%p 하락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0.3%p 상승했다. 퇴직급여 수혜율은 45.7%, 상여금 수혜율은 39.2%로 각각 0.3%p, 0.5%p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년 8월 기준부터 통합 통계를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광주와 전남 자료도 하위 통계로 제공돼 지역별 고용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은행, 코스피200 연동 예금 출시

최고 연 9.15%…안정형 2종·수익형 1종 구성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예금 상품이 출시됐다.

NH농협은행은 코스피200 지수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연동예금(ELD) 26~11호’를 출시하고 오는 27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투자자의 안정성과 수익성 선호에 따라 ‘안정 I형’, ‘안정 II형’, ‘수익 I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만기는 안정 I형과 수익 I형이 1년, 안정 II형이 6개월이다.

1년 만기 안정 I형은 개인 고객 기준 연 3.75~3.95%, 법인 고객 기준 연 3.60~3.80%의 금리를 제공한다. 6개월 만기 안정 II형은 개인 기준 연 3.40~3.60%, 법인 기준 연 3.20~3.40%의 금리 범위를 제시했다.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노리는 고객을 위한 수익 I형은 만기 1년 상품이다. 개인 고객 기준 최대 연 3.20%에서 최고 연 9.15%의 금리를 제공하며, 법인 고객은 연 3.05~9.0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수익 I형은 코스피200 지수가 관찰 기간에 35%를 초과해 상승하면 노크아웃(Knock-Out) 조건이 발생해 최저 금리로 수익률이 고정되는 구조다. 지수 상승 폭이 커지더라도 약정된 조건에 따라 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상품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크,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 고객과 6개월 만기 상품인 안정 II형은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인공지능으로 지역 현안 해결 아이디어 구현

GICON, ‘광주 SW미래채움 바이브코딩 해커톤 챌린지’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7~18일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서 열린 ‘2026 광주 SW미래채움 바이브코딩 해커톤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SW미래채움 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40명이 8개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학생들은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전남광주 지역의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디지털 서비스로 구현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딩 문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지역 사회의 변화와 일상 속 불편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에서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 활용법을 익힌 뒤 본 대회에서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바이브코딩은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 방식이다.

대상은 전남광주의 복지제도 차이에 주목한 ‘같은 시민 다른 혜택’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양 지역의 복지 혜택을 시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제안해 지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광림과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160MW 규모의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협력 업무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전남개발공사·광림, 영광 160MW 해상풍력 공동개발

사업비 약 8000억원 규모…인허가·사업참여 방안 등 협의

전남개발공사가 ㈜광림과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추진 중인 160MW 규모의 ‘영광의 미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협력을 구체화한다.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인허가와 사업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국산 해상풍력 터빈 실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광림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 협력 업무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맺은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와 향후 사업참여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양 기관은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에 협력하고, 공동개발 참여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사업참여 방식과 세부 계획은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광의 미래’ 사업과 연계한 20MW급 국산 해상풍력 터빈 국가 실증사업 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내 해상풍력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사업 유치와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완도 400MW, 신안 323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연 8조’ 전남광주교육청 금고, 농협 단독 응모

재공모에도 농협만 제안서 제출…수익계약 절차 진행

연간 8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 운영기관 공모에 NH농협은행이 단독 응모했다.

재공모에도 경쟁 은행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익계약을 통해 금고 운영기관이 선정될 전망이다.

21일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진행된 1차 공모에 이어 19일 마감한 재공모에서도 농협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통합교육청은 오는 29일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농협은행의 제안서를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익계약 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선정된 금고 운영기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를 맡는다.

심사위원은 사전에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교육청 대출·예금 금리, 금융서비스 편의성,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반려인 천만시대…동물병원 진료비 ‘부르는 게 값’

작년 전국 조사 최대 110배…입원·백신·혈액검사도 편차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진료 항목의 비용이 최대 11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과 진료비 정보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진찰과 상담 등 기본 진료부터 예방접

종, 혈액검사, 정밀 영상검사에 이르기까지 병원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진 진찰료의 전국 평균은 1만520원이었고 중간값은 1만원이었다. 하지만 최저가는 1000원, 최고가는 6만1000원으로 61배 차이를 보였다. 재진 진찰료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1000원으로 같은 격차가 발생했다.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논의하는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

중간값 1만원이었지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1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10배에 달했다.

기본적인 진료 항목에서도 편차가 컸다. 반려견 입원비는 평균 6만5040원으로 최저 1만원, 최고 33만원이었다. 반려묘 입원비 역시 평균 5만6417원으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반려견 종합백신 접종비는 최저 7500원, 최고 6만원으로 8배 차이를 보였으며 반려묘 종합백신은 최저 8000원에서 최고 7만5000원으로 9.4배 벌어졌다.

혈액검사 비용도 병원에 따라 큰 차이

를 나타냈다. 전월구 검사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15배 차이가 났다. 평균은 3만5973원이었다. 혈액화학 검사비는 평균 8만6502원이었으며 최저 3만원, 최고 25만원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정밀 영상검사는 비용 격차가 금액 기준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CT 촬영비는 전체 기준 최저 25만7000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124만3000원 차이가 났다. 평균은 60만1333원이었다. MRI 촬영비는 최저 40만원, 최고 160만원으로 120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은 72만2789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진료비 편

차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농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개별 병원 진료비 정보 공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진료 항목 표준화와 장기적인 표준수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